

## Session 04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 (마 5:4-6)

### (Mourning, Meekness, and Spiritual Hunger)

#### I. 복습: 산상 수훈

- A.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영적 발전과 사역의 영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팔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가르침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 B. **팔복(The 8 Beatitude):**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가운데 살아감, 하나님을 목말라 함, 자비를 베품, 순결하게 살아감, 화평케 하는 자가 됨, 핍박을 견딤(마 5:3-12).
1. 팔복의 전반부 4 가지는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3 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 자립적(self-sufficient)이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위해 애통해함(4 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self-satisfied) 않음을 말한다. 우리가 온유한 것(5 절)은 고집스럽지(self-willed) 않음을 말하며, 우리가 배고픈 것(6 절)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지(full of self) 않음을 말한다.
  2. 팔복의 후반부 4 가지는 세상이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자비롭기를 구해야 한다(7 절). 우리는 정결하기를 추구해야 하며(8 절), 평화를 가져오며(9 절), 불평 없이 핍박을 견뎌나가야 한다(10-12 절).
- C. 예수님께서서는 이 팔복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성령께서 내적 자아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심령을 가지게 됨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팔복을 살아갈 은혜가 부여됨을 말하며, 계시(깨달음)와 기도의 영으로 움직이며, 그분의 임재와 권능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역함을 말한다.

#### II. 심령이 가난함 (마 5:3)

- A. 심령이 가난함은 우리의 마음이, 사역이, 교회와 사회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부여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에 비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우리 심령 안에 거룩을 세울 능력이 없으며, 다른 이들에게 이를 부여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결핍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 B.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 사역,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해야 할 것이 더욱 많다는 사실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실제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됨으로, 이 복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다.

- C.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는 그분의 나라를 개인의 삶 안에서 더욱 경험함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이 현재 저희 “것이라고” (is, 역자주: 확증) 하셨으며, (미래에) 언젠간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실체, 즉 생명력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III. 영적인 애통함 (마 5:4)

- A. 심령이 가난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부분이며, 영적인 애통함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우리 자신의 엄청난 필요를 알게 됨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더 경험하는 것을 두고 애통해하게 된다. 이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한 애통함이 아닌, 영적인 돌파를 향한 애통함을 말한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 B. 거룩한 근심과 애통함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둔한 심령과 능력 없는 사역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애통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애통함의 은사(선물)는 드물며, 가치 있으며, 강력하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충만함을 이루어나가는 것 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 받기를 거절해야 한다.

...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돌파)에 이르게 하는 회개(전심)를 이루는 것이요  
 ...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타협에 대해)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 (고후 7:9-11)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돌파)을 위한 회개(전심)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11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타협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 (한글 KJV, 고후 7:9-11)

- C.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교회와 국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애통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두신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의 격차를 알게 됨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삶과 국가의 영적인 상태를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사 6:5)

D.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 실패와 영적인 부분에 이써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인해 애통해야 한다.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8-10)*

E.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식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애통함을 경험하게 된다.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을 줄어든도록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사역의 영향력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든다(마 25:2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지만, 만일 그분의 충만하심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없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분량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 큰 분량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F. 이러한 거룩한 절박함과 거룩한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힘,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해답은 없다. 우리 문화는 편안함(위로)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이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위로를 추구하며,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인간의 감수성에 뿌리는 둔 잘못된 위로를 거절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선한 의도일지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잘못된 위로를 거절하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당신의 비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결핍으로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불모지에 감혀있지만 이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 IV.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5)

A.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심령은 서로 연관이 있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너무도 필요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온유함은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빚진 마음을 가지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B.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원들이 (은사, 재정, 권위의 자리 등)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여기며, 우리가 헌신하고 힘든 일을 해낸 것들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C. 온유함이나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낮은 자존감에 뿌리는 둔 소심한 성격적 기질과는 다르다. 온유함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이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D. 온유함의 본질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와 관계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겨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며, 청지기의 마음과 관대함으로 이를 사용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가 더 많은 재정과 명성과 환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긴다. 우리가 자신의 은사와 성취, 헌신과 지위를 어떻게 여기느냐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특권과 명성을 요구하며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 E. 만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들을 더 이상 과장되고 자만하는 태도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작은 지를 불평하거나, 우리의 은사나 권세의 위치, 재정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와 같이 많은 은사를 가졌고, 헌신되었으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무시하거나 대항하겠는가?”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전 4:7)*

- F.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은사의 부족함에 대한 잘못된 시각,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한 잘못된 시각,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나 재정의 풍족치 않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가 부족해지거나, 이로 인해 멸시를 받거나 반대에 부딪칠 때 쉽사리 실족해버릴 수 있다. 온유한 자는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작은 혹은 큰) 축복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일이 중요하거나 비천한지에 상관없이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받을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조종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일을 거절한다.

*7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7-10)*

- G.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은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며, 다가올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마 19:28; 계 3:21; 5:10; 20:4-6).

## V.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함 (마 5:6)

- A.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목말라하는 것의 필요성, 이것의 영광, 그리고 이를 목말라 할 때의 자유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 안에, 다른 이들의 삶에, 그리고 사회에 의가 풀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더욱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다. 의를 향해 목말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 그분께 과격하게 나아가는(press into)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향하여 추구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거절한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하나님께로 과격하게 나아가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는 오늘날 성행하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B. 우리 자신의 엄청난 필요를 보게 됨으로(3 절), 우리는 돌파를 향해 애통합하게 된다(4 절). 우리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목적들을 섬기는 것에 모든 자원과 힘을 쓰게 된다(5 절). 우리의 배고픔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그분을 추구하되 짧은 시즌 동안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하는 지속적인 열심의 은혜가 부여됨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6 절).

C.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의 충만함을 이루는 상을 위해 열심으로 달려나갔다.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바울의 부르심의 충만함)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 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바울의 부르심의 충만함)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D.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한 부분으로 금식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의를 풀어놓으시는 한 분을 추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노력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E.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의 삶에, 우리의 국가 안에 의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한다.

F.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언행의 작은 부분에 의가 풀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 직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의를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분노, 음행, 관계에서 충성치 못함, 거짓 맹세, 복수, 수동성을 거절하는 것이다(마 5:21-48).

G. 배고픔은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의 하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이 없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없음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기도과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영적인 중환자실”에 살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다. 배고픔과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이지 않다. 배고픔이 결여된 것은 우리의 영이 심각한 병에 걸린 증거이다.

H.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지경을 찾는 것-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추구함이 자라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경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둘 중 하나이다. 우리 마음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언제든 이에 대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있으시다.

I.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신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노력이나 작은 일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맡은 일이 작더라도 이를 멸시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J.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는 의를 위한 더욱 많은 은혜를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험해 나가게 될 것이다.